

“ 각 프로젝트에 있어 사업제도 및
 대책 수립은 다르지만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관점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물관리에 대한 귀국의 상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권순국 교수의 발표내용 중 한국 수자원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대처방안 등은 대단히 흥미로 왔으며, 일본의 수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과제 등과 비교해 보아도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프로젝트에 있어

사업제도 및 대책 수립은 다르지만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관점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 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저수지의 효율적 물이용에 관한 방법으로 수량의 유효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관리방법, 물관리 시스템 등 기술면, 경제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금후에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화에 있어서 환경보전 문제가 큰 요건으로 제기되어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자원 개발과 확보 등 널리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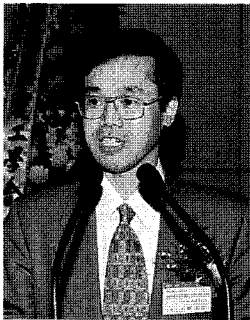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물사용 및 수리시설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는 초기·운영·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라이프 사이클 비용이 매우 중요하며, 더욱이 조사, 계획, 설계, 시공, 관리에 걸친 기술의 연계 및 이에 적절한 관리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의 공동 주관자인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어촌연구원 방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리시험장, 환경연구실, TC/TM 시험포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견학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체제 및 그 조직은 달라도 기술적 과제에 대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개념이 거의 비슷하여 그 대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자원의 확보 및 유효이용에 대해서는 질과 양이 모두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수질면에서 거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양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양질의 수자원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되어 수질보전 및 수질 정화 대책을 세운 후에 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토목 부문 이외의 생물·화학 부문의 기술력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약 및 비료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악화가 당면 문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집락 배수 및 축산오수의 유입에 의한 하천의 수질악



市野吉造

일본 농림수산청
 구조개선국 건설부 설계과

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댐 건설 등은 적지의 감소와 환경보호의 배경 등에서 금후는 건설이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물의 재이용에 대한 유효활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물 이외에 집락배수 오니(汚泥) 및 축산오물을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여 토양의 유기질 환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에 관한 연구개발(기술면, 경제면의 검토)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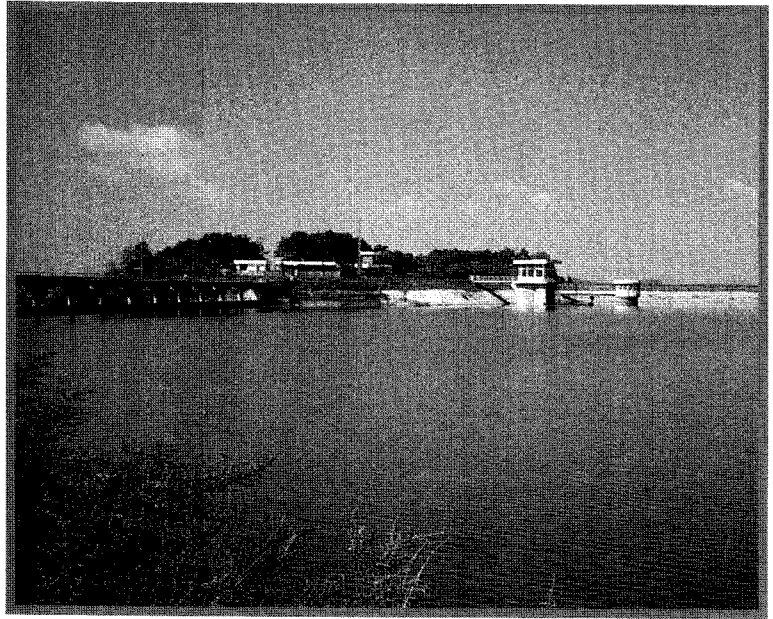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일본에서는 민간의 진보된 기술 도입을 위한 관민연계의 조사연구도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타분야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기술 교류가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농지개발은 간척이 주를 이루며, 대규모의 간척 사업이 완성되었는가 하면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을 포함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토지개발사업과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화 간척지구는 사업제도 및 사업 실시 조직 체계가 일본과는 다릅니다만 그 규모에 재삼 놀랐습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 홍보실에서의 간척제방 최종 체절의 비디오 관람은 현장 방문으로 그



시공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조제의 시공은 근방에서 채취 반입이 가능하여 시공상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으며, 간척지내의 조정지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도시가 있는 곳에서는 수질 문제가 어디든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어업보상·간척지의 동식물을 포함한 환경 보전 등 그 대상 규모를 지역에서 국내 그리고 지부로 넓혀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간척 사업은 더욱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방문기간 동안 환대해 주신 KCID 조홍래 회장 이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